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이달의 캠페인 - 예배 시간 10분 일찍, 기도와 찬양으로

◎ **대림절:**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경건과 절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2013.12.31(화) ~ 2014.1.2(목) 회비: 10불(1인)

장소: Hunua Falls 크리스천 캠프 주제: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시편 113:1)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맞이를 전교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공동체는 힘써주시고, 공동체별로 참가 인원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 **기도회:**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는 16일(월)~20일(금)까지 실시됩니다. 한해를 기도로 마무리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오전 5시 30분, 장소: Chapel room

◎ **총회:** 2014년 교회를 섬길 남녀 각 선교회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 **섬김:** 2014년도 교회의 여러 분야를 함께 섬겨 갈 성도들의 자원을 기다립니다.

(찬양대, 교사, 차량안내, 주방 봉사, 인도자, 공동체장, 중보기도자, 예배안내 등)

◎ **달력:** 2014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 **감사:** 음악회를 위해 2남 선교회원들과 식사와 간식으로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새벽 기도회 본문

6일: 고후 3:12~18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13일: 고후 7:2~7 관계 회복은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20일: 고후 10:12~18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 27일: 고후 12:11~21 사랑하면 아픔을 감내합니다

29일: 고전 16:1~12 나눔과 동역으로 세워지는 교회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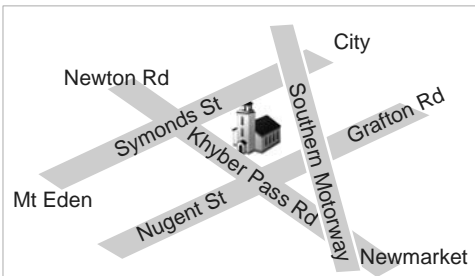
밀알장애우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오시는 길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2013년 12월 1일

15권 48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대림절을 맞으며

사람들은 삶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을 기다리고, 건강을, 성취를 기다리고, 평안을 기다리기에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이 항상 설렘과 기쁨만을 가져다줄 수는 없습니다. 기다림 안에는 소망과 함께 공유해야 할 아픔 또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처절함을 겪으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주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를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待臨)이란 말은 '기다릴 때'와 '임할림', 말 그대로 임하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탄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거리엔 산타가 등장하고 도로변에서는 성탄 나무를 판다는 글귀로 성탄의 계절임을 먼저 자각할 만큼 성탄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다림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쉽습니다. 올해도 또다시 성탄을 소망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대림절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전 년전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약속에 소망을 두고 시련을 극복했던 역사를 되새겨 보며 우리의 아픈 과거 속에서도 오늘을 있게 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입니다. 기다림은 미래를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돌이켜보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이들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눈물도, 실패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경건과 절제로 주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디어졌던 마음을 다시 갈고 닦는 것으로서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마음을 향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시기입니다.

-이태한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추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Ph: 09 - 369-5077

Ph: 09-475-6312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95:6~8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28장 다함께
※ 성서교독	115. 구주강림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84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광희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20:1~12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행복한 사람 이태한목사
찬송	380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15:00)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박일영 장로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김은희 집사
성경 / 룻기 4:7~12
설교 / 기업 무는 보아스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544장
주기도 / 다함께

금주의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경건한 삶으로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한해의 정리와 결산을 주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지친 이민자의 삶을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에서 오는 힘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2. 뉴질랜드와 이스라엘을 위해

다민족 국가답게 모든 민족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도록.

공동체의 이름을 각 나라로 정하여 한 해 동안 살피고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 공동체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을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더 살피면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정치와 종교를 중심으로)

정치: 1948년 나라를 건국함으로써 2000년에 걸친 망명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1985년까지 다섯 번에 걸친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2000년 레바논에서의 군 철수와 더불어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높아지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압력, 이슬람교 집단에 의한 테러와 아랍인들의 반란으로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평화협정 과정, 유대인의 아랍국가 정착에 대한 미래, 예루살렘과 골란 고원지대의 미래 때문에 분열이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립 정부의 힘 균형유지와 동방 정교의 유대인들은 사회를 더욱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평화 협정을 위한 미국, 유엔과 다른 나라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나마 2001년도 초기에 새롭게 일어난 아랍인들의 폭력으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재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교: 국민의 98%가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유대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종교가 있고 또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종교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극단적인 동방정교 유대인들은 소수 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하면서 나라를 흔들고 있으며 때문에 연립정부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아이러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혁 및 보수 유대인들이 소외되고 반 개종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끊임없이 압력을 받으며 메시아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병역을 거부하면서 정부가 자신들의 기관을 뒷받침할 재정을 많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12월 교회알지

한 주간 기도회:
12월 16일(월)~20일(금)
성탄주일:
12월 22일(주일)
성탄 축하예배:
12월 25일(수) 오후 5시
송년주일:
12월 29일(주일)
전교인 수련회:
12월 31일(화)~1월 2일(목)

◎ 12월 예배봉사가

예배안내 :
박일영/임혜자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오지영 권사
다음 주일: 이규임 권사
다음 주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12월 11일 수요: 이순옥 집사
12월 11일 애찬: 김은희 집사
12월 15일 주일: 이기중 권사
12월 15일 청년부: 박제용 장로